

## 無產者 階級の 哲學과 近代哲學

安光泉

나는 「朝鮮之光」今年七月號에 「唯物辨證法」이라는 글의 첫머리만을 써서 發表하고 그것을 繼續하여 쓰지 못하고 말았다. 나의 多事가 그 原因의 重要한 것이었지마는 그 問題에 對한 나의 智識 不足도 또한 나의 原因이었다. 요사이에 이르러 나는 時時로 내 自身の 哲學 智識이 不足한 것을 一層 痛切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今後 一定한 時間을 그것에 對한 研究에 바치고져 혼자 心定하였다. 이에 내가 繼續하여 發表하고자 하는 것은 純全히 나의 研究노-트格的 것이다. 그리고 諸參考書 中 데플린의 著書 「唯物辨證法 人間」이 나에게 가장 조흔 指導者되는 것을 말하여 둔다.

이 機會에 한마디 말하여 두고 심흔 것은 一九二五年 一月부터 「思想 運動」에 繼續 發表된 「唯物史觀 要領 解說」이라는 나의 論文에 對한 나 自身の 態度이다. 그것은 「朝鮮之光」今年 十月號 及 十一月號에서 同志 朴文乘氏가 指摘한 바와 가티 徹底한 唯物論에 立脚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그새의 認識은 朴文乘氏에게 批判되기 前에 事實上 벌써 나 自身에 依하여 清算되었던 것이다. 氏가 나에게 對하여 指摘한 바를 要約하면 (1)唯物史觀의 本質를 變更의 理論으로서 把握하지 아니하고 『認識說明 理論으로서 把握』한 것 (2)唯物史觀을 無產階級××××로서의 唯一한것』으로 解得하지 못하고 所謂 重要的 戒器의 『한 가지』로서 解得하였다는 것 (3) 歷史動力의 決定的 原因으로서의 生産力을 다시 決定하는 慾望을 섹트하트르 河上肇와 한가지 承認하였다는 것 (4)새 生活 方法은 새 慾望을 産出하고 新 慾望은 新 生活을 産出한다고 한 것 等이니 그點은 그 後에 이곳 저곳에 發表된 나 自身の 論文으로서 다 克服되었다. 그것을 證明할 만한 것을 나의 글로부터 簡單하게 摘記하여둔다.

(1) 『觀念論에 對하여 無慈悲한 싸움을 始作하여야 할 것은 다시 더 말할 必要도 업거니와 우리는 그와 同時에 世界變更의 槓杵인 變吏의 理論을 分明히 把握하여야 한다』(一九二六年十二月) 「朝鮮之光」 「觀念論에 對한 批判」-安乎干的變名으로)

(2) 「唯物辨證法的 理論은 압흐로 向하야 努力하고 또 突進하고 잇는 싸라 서 現在 到達된 狀態에 對하야 必然的으로 不滿足인 階級에 對하야 ××의 ××××이다」故로 意識上의 戰鬥를 無所用하다고 하는 者는 結局 鬪爭을 無所用하다고 하는 者이다 「×××理論이 업시는 如何한 ××運動도 잇슬 수 업는 것이다」(一九二七年二月) 「朝鮮之光」 『吏生의 道 읽은 感想-經濟學士 徐椿君을 駁함』)

『最近 우리 運動의 發展 理論鬪爭의 展開는 푸로레타리아트에 依한 哲學의 把握이 얼마나 貴重한가를 實踐的으로 가르쳐 주고 잇다. 『哲學이 푸로레타리아트에 잇서서 그 物質的 ××를 發見하는 것과 가치 푸로레타리아트는 哲學에 잇서서 그 精神的 ××를 發見한다. 그리하야 思想의 閃光이 素朴한 人民의 地中으로 힘있게 돌진하면 곳……人間으로서의 ××하는 일이 完成될 것이다』

『哲學은 푸로레타리아트의 揚棄가 업시는 實現되지 못한다. 푸로레타리아트는 哲學을 實現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揚棄하지 못한다.(맑스)(一九二七年七月 「朝鮮之光」 「唯物辨證法」의 序論으로 記述되었던 것이 編輯者의 「考慮」에 依하야 削除當한 部分 中)

(3) 「사람은 太初에 行動하기 前에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로혀 反對로 생각하기 前에 먼저 行動하였다」 「社會的 行動이 업는 곳에는 如何한 思想도 出發할 수 업는 것이니 實踐을 썬 思想을 是認하는 것은 客觀的 實際를 썬 精神을 是認하는 것이다」 「生活 實踐은 認識 理論이 考察하여야 할 基本的 視角이다」 「그리고 이 理論은 哲學的 空論의 際限업는 巧辯을 劈頭부터 放送함에 依하야 必然으로 唯物論으로까지 나아간다」 『無產階級の 哲學은 唯物論이며 또 行動哲學이다. 우리는 自然의 一產物이니 우리의 精神은 自然法則에 依存할 것이다. 우리는 社會關係로부터 썬날 수 업는 것이니 우리의 精神은 社會關係에 存在한 것이다…… 『사람의 意識이 그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혀 反對로 彼等의 社會的 存在가 그 意識을 決定하는 것이다』 (맑스)』 (一九二六年十二月 「朝鮮之光」 「觀念論에 對한 批判」)

『精神이 根本이냐? 物質이 根本이냐? 이 質問에 對하야 우리는……物質이 根本이라고 確答한다 人間의 精神에 對하야 物質이 決定的 役割을 行하는 것』이다 『「唯物史觀에 依하면 歷史에 잇서서 最後의 決定的 要素는 現實的 生命의 生産 及 再生産이다」』 (一九二七年 「朝鮮之光」

「吏生의 道 읽은 感想을 읽은 感想」

(1) 『우리 無產階級の 哲學은 너의들이 생각하는 것과 가티 사람의 意思를

아조 度外視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人間의 意思의 重大한 役割을 안다. 다만 問題를 物質이 決定的이나? 精神이 決定的이나?고 制限 했을 때 우리는 物質이 決定的이라고 答하였을 뿐이다……原因이 結果를 決定한다. 그러나 結果가 또 原因에 影響한다. 原因과 結果를 對立絶緣식하지 아니하고 交互的으로 連結식하여야한다. 自然社會가 우리의 意思를 決定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自然社會에 對하여 行動하게 된다. 그런데 如斯한 思考方法은 우리를 必然으로 辨證法으로까지 引導한다』 「朝鮮之光」 「觀念論에 對한 批判」

#### 一, 쎄-콘 [베이컨]

쎄-콘 哲學은 中世紀 스콜라哲學의 廢墟에서 發生한 쑤르쵸아 時代 最初 □産의 唯物論的 敎理이다.

封建制度의 崩壞와 新興 쑤르쵸아 社會 關係의 成熟에 차러서 스콜라哲學의 舊 이데올로기-는 破裂하고 쑤르쵸아의 新 이데올로기-가 發展하기 始作하였다. 舊와 新이 衝突하였다. 그 衝突은 當時 所謂 實在論者와 唯名論者의 概念에 關한 論爭으로부터 現出하였스니 實在論者에 對立하여 觀念과 概念의 形而上學的 意義를 否定한 唯物論者는 舊 哲學의 叛逆者 新哲學의 開拓者이었다.

實在論者는 一般的 概念이 事物과는 關係없이 無形體的으로 存在한다는 것 概念 自體가 實在的으로 存在하여 그것이 事物에 先行한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그들은 思惟 概念을 出發點으로서 取하고 概念을 分析하여 모든 物理的 實在性은 엇든 概念의 한 屬性으로서 取扱하였다. 그것에 對立하여 唯物論者는 事物을 概念의 先行者로서 取하고 抽象的 實在性을 否認하고 具體的 實在性을 主張하였다. 實在論이 概念의 形而上學的 意義에 關하여 理性論的 方向을 表現하였다하면 唯物論은 最初로부터 感覺論에의 執着을 表現하였다. 實在論者가 大體에 잇서서 플라톤의 觀念論에 매어 달녀 잇섯다 하면 唯物論者는 에피쿠르스의 唯物論에 連結 되어 잇섯다. 故로 兩者의 鬪爭은 엇던 意味에 잇서서 觀念論과 唯物論의 鬪爭이었다. 故로 맑스는 唯物論을 評하여 「唯物論의 最初 表現」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唯物論者가 觀念과 概念의 形而上學的 意義를 否定하고 事物은 抽象에 不過한 우리의 論理的 概念의 先行者라는 見解를 把持한 것은 完全히 唯物論과 一致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完全히 唯物論에 到達하였다고 하여서는 誤解이니 그 有力한 證據로서는 그들이 神의 存在를 否認하지 못한것만 들어도 넉々하다. 그럴뿐 아니라 그들이 出發식한 感覺論에도 不充分한 點이 만했스니 그 中에도 그 後에 出現된 現象論主觀的 觀念論의 씨가 準備되어 잇섯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가티 不徹底함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舊 思想에 對하여 一步前進을 意味하였

스니 時代의 變動에 싸리서 그것은 廣汎한 潮流를 이루게 되었다. 썬-콘의 哲學은 이 潮流 속에 產出된 것이다. 썬-콘의 理論은 唯物論과 合致되어 理性論, 抽象的 實在性을 否定하고 全注意를 具體的 實在性에 集中하였다. 實在論에 對한 唯物論의 鬪爭의 本質은 大體에 잇서서 所謂 方法論的 問題에 還元할 수 잇스니 理性論的 思惟方法에 對함에는 唯物論的 認識方法이 必要하였다 그리고 그것에는 科學-무엇보다도 自然科學이 必要하였다. 썬-콘은 (제갈트도)科學의 獲得의 必要를 理解한 最初의 哲學者이었다. 이 哲學者의 意見에 依하면 科學의 最高目的 唯一 課題는 ·人間의 自然에 對한 君臨이다. 智識이라는것은 如斯한 能力의 獲得을 爲한 最良의 手段이니 人間에게 物質 世界에 對한 權力을 保證할 수 잇는 것은 오즉 智識 뿐이다. 워 그러나하면 自然에 對한 우리의 能力 우리 權力은 오즉 事物의 相互的, 內面的, 連結의 理解 卽 自然法則에 對한 智識에 매여 잇기 때문이다.

이와 가티 썬-콘은 科學으로써 人間 智識의 모든 領域을 把握하고자 全 自然을 認識하고자 努力하였다. 如何히 全 自然을 認識할것이나 이 問題에 對하여 썬-콘은 答하여 가라대 『觀察과 實驗에 依하여서라고 즉 經驗에 依하여서라고 從來의 觀念論者들은 「主體」에 依하여 斷定된 論理的 概念의 作用에만 依하여 事物을 認識하여 왔슴에 反하여 新 唯物論은 그것을 經驗에 依하여 認識하게 되었다』 經驗을 認識原則으로서 把握하게 되었다 그러나 썬-콘이 말한 經驗은 그 後의 휴-口 쏘는 近代의 「純粹 經驗」 信奉者들이 말하는 經驗과는 判異한 것이니 썬-콘에 잇서서는 認識의 規準이 客體 物質的 世界이오. 決코 內的 經驗, 體驗, 乃至 意識 狀態가 아니다. 그 는客體論者 이었다. 客觀 世界의 獨立의 存在를 肯定하였다. 그리고 그는 決코 自然을 觀念化하고자 아니하였다. 그의 認識에 잇서서는 人間의 感覺, 理智 等의 主觀的 要素는 決定的 價値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가라대 『人間의 感覺을 事物의 規範으로 보는 것을 잘못이다……』 『人間의 理智는 事物에 對하여 腐蝕한 鏡과 가트니 自己 獨自의 性質과 混同한다. 그래서 人間의 理智는 事物을 不正하게 하고 毀損한다』 고 하였다. 果然 그러타 모든 自然 認識은 感覺器官의 智識覺으로부터 始作되지마는 客觀的 世界는 人間의 特殊性에 適應하는 形式을 取하여 映照되는 것이다. 『故로 人間 組織 內에만 屬하여 잇는 主觀的 要素와 認識의 客觀的 要素와를 區別할 必要가 잇는 世界를 人間的 希望과 同情의 視角으로부터 본다하면 우리는 決코 客觀的 認識을 獲得할 수 업슬 것이다. 眞實한 認識이라는 것은-客觀的 世界를 그것과 合致하는 客觀的 世界의 見点으로부터 討究하는 境遇에 獲得되는 것이다』 (데몰린) 故로 自然 認識에 잇서서 盲目的으로 無批判的으로 感覺器官의 智意에

짜러서는 아니란다. 客觀的 要素의 影響을 克服하면서 智意을 合理的 完成에 짜르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썬-콘의 努力은 自然의 具體的 理眞性의 科學的 討究이엇다 그리고 『自然의 모든 現實的 說明은 信實한 實驗으로부터 成立된다. 그 境遇에 感官은 實驗을 實驗은 客觀 그 自體를 判斷함에 不過하다』 고 하엿다. 實驗은 우리의 感官이 完行하지 못하는 것을 完行한다고 미덧다. 그럴뿐아니라 썬-콘은 實驗, 科學의 힘에 依하여 自然에 숨어 잇는 모든 秘密을 探究할 수 잇는 것을 미더서 疑心하지 아니하엿나니 이점에 잇서 썬-콘은 彼等 懷疑論者와 區別된다.